“따지는 마음만 없다면 마음이 본래 부처”

이번 호부터는 〈전심법요〉에 이어 〈완릉록〉을 연재한다. 둘 다 상공 배휴가 묻고 황벽선사가 대답한 기록인 점은 같다. 다만 전자는 당(唐) 842년에 배휴가 종릉의 관찰사로 일할 때 기록한 것이고, 후자는 6년 뒤인 848년 완릉에서 적은 것이다. 완릉은 안휘성의 성도로서, 양자강 남쪽 구릉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다.

전편에서는 질문자를 ‘배휴’라고 했는데, 여기 후편에서는 ‘상공 배휴’라고 높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전자는 배휴가 직접 기록한 것이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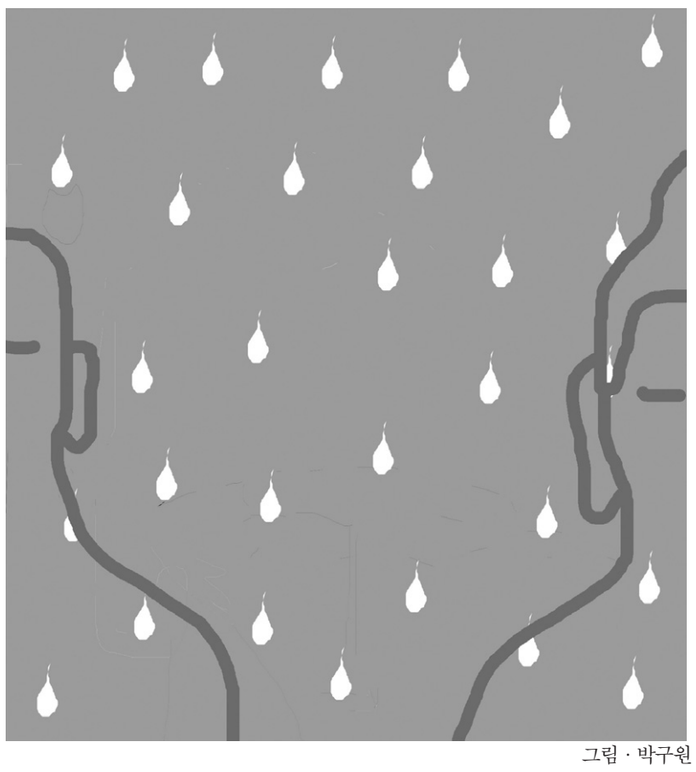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는아이 달래기 위해서
나뭇잎 돈이라 눈가림 하듯
말 역시 ‘도’ 깨닫게 하는 장치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마음이라 부른다
이 마음이 부처요, 무심이 道

‘평상심이 도다’ 곧 무심
눈앞에 다 드러나 있으나
한계 그을 수 없는 ‘평상심’

허공은 마음과 모습같으나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다
허공은 법신의 실상 자리와
둘이 아니지만 비유일 뿐

1.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상공 배휴가 황벽스님께 여쭈었다.

“산중(山中)의 사, 오백 명 대중 가운데서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대사가 말씀하셨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어찌 언설(言說)에 있겠느냐? 말이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데 쓰일 뿐이다.”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나뭇잎을 돈이라고 잠깐 눈가림을 하듯이, 언설도 역시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므로 언설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언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설은 어디까지나 도를 깨닫는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황벽스님의 말씀에서 가늠할 수 없는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된다.

2. 무심이 도

배휴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무심(無心)이 도(道)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을 억지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무심이 도다. ‘무심’은 ‘평상심이 도다.’ 하는 입장의 무심을 말한다. 평상심이란 비록 눈앞에 다 드러나 있지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한계를 그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이거다!’ 하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본래 마음자리를 우리는 ‘무심’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드러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조사들은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몽땅 드러났거늘, 깨달음이 없어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일러준다.

다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있고 없고, 길고 짧고, 너와 나, 나아가 주체니 객체니 등의 따지는 마음만 없다면, 마음이 본래로 부처요 부처가 본래 마음이다.

그런 주관과 객관의 상대성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마음도 허공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인식되어지는 입장을 넘어서 있다.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이나 허공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적이 없다. 마음도 그와 같다. 그런 허공 같은 마음에 이런저런 언설이나 모양을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다. 실지 허공이나 마음 자체에 무슨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한편 이렇게 허공은 겉으로 마음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달리 영지(靈知)라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다. 공적한 모양은 같지만, 허공은 마음과 달리 찬 물을 뿌리면 차가운지 더운지 구별 못한다. 그러나 마음은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없음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허공은 법신의 실상자리와 둘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비유로서 그 어떤 완벽한 허공도 부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부처를 따로 구하려 하지 말라. 구함이 있으면 모두가 고통이다.

다 이 속의 일이니까, 따로 부처를 구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사람들은 ‘부처를 깨달아야 된다. 부처가 뭔지 자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뭔가를 구해 얻으려고 하는데, 그 한 생각을 먼저 돌이켜야 한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다 보면, 점점 더 때를 묻혀서 어지러워진다. 황벽스님은 ‘본래 얻을 것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주고 있다.

설사 오랜 세월 동안 육도(六度)만행을 수행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구경(究竟)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온갖 만행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경열반에 대한 완벽한 입장을 갖추지 못한다. 육도만행이란 것은 만들어진 업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는 허망한 그림자가 이렇게 변하거나 저렇게 변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변하는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변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인연의 조작은 유위법으로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아침이슬, 번갯불과 같은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㉗



실제로는 열반하지 않고서 언제나 이곳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신다. 〈법화경〉

죽음=진실, 삶=방편

나는 지금 일본의 시코쿠(四國)에 와있다. 불교신앙의 입장에서, 시코쿠를 말할 때는 88개 사찰 순례를 빼놓을 수 없다. 진언종의 개조 코우보(弘法)대사 쿠카이(空海)스님과 인연이 있다는 절 88개를, 1번부터 88번까지 번호를 붙여놓고 돌면서 참배하는 것이다. 이 88개 사찰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1년에 약 3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순례는 1번에서부터 88번으로, 즉 시계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그 역으로 돌 수도 있다.

1번부터 출발하여 88번까지 도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88번부터 1번으로 “거꾸로 도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고 한다. 그 이유는, 거꾸로 돌아야 바로 돌고 있는 코우보 대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우보 대사의 생몰연대는 774년에서 835년이다. 그러니까 835년에 돌아가신 코우보 대사를 시코쿠의 순례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만나고자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말의 밑바탕에는, “대사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은 시코쿠의 순례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우보 대사의 유골을 모신, 진언종의 총본산 고야산(高野山)에도 있다. 그곳에서는 코우보 대사는 그저 선정에 들어계실 뿐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개는 835년에 돌아가신 것이 진실인데, 그저 방편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을까? 과연, 그것은 타당한 이해일까?

죽음=방편, 삶=진실

그렇지 않다. 죽음 · 열반은 오히려 방편일 뿐이며, 실제로는 언제나 살아있다는 소식(消息)이야말로 진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전의 하나에, 바로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이 있다. 여래수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목숨, 생명, 수명이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80년을 살고 가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80년이 부처님의 수명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각을 얻은 이후로 무량백천만억아승지겁이 되었다.”

무량백천만억아승지겁이라는 시간은, 가히 무한대의 시간이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이다. 언제나,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각 이후 45년이 지나서, 열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시간이, 바로 ‘언제나’이다.

80년 이전, 즉 태어나기 전에도 부처님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80년 이후, 즉 열반을 보이신 뒤에도 사실은 존재하고 계신다. 부처님을 육체로 보지 않고 불성(佛性)으로 볼 때, 우리 역시 그러한 인식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 박구원

그러니 835년 이후에도 계속 살아 계시고, 지금도 시코쿠의 88개 사찰을 계속 순례하고 있다는 코우보대사의 이야기는 방편이 아니라 진실이 된다. 835년에 입적하신 것이야말로, 오히려 방편이 아닌가. 코우보 대사의 생명 역시, 부처님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육체가 아니라 불성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의 부처님이나 시코쿠의 코우보 대사님이나 모두 불성생명이고, 그 수명은 무량백천만억겁이다. 나이 역시 동갑(同甲)이다. 그러고 보니, “금년에 아미타부처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오”라는 어느 선승의 물음에, “나랑 동갑이오”라고 했다는 일본 정토종의 스님 이야기도 떠오른다.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 역시 다 동갑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부처님은 그 하나인 생명, 그 무량한 생명을 알고 있으나 우리 중생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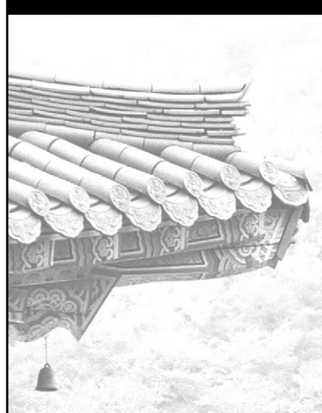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